누구나 돈이 남아돌게 할 수 있다

(고후9:1~15)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누구나 돈이 남아돌게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누구나 돈이 남아돌게 할 수 있다.
꿈에도 그리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돈이 남아돌게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유념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돈이 남아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평생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돈이 남아돌게 벌 수는 없습니다, 남아돌게 할 수는 있지만 남아돌게 벌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재벌 그룹의 총수도 돈이 남아돌게 벌 수 없습니다.
삼성, LG가 수십 조 씩 순이익을 내도 돈이 남아돌게 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지금 내게 있는 돈이 얼마든지 간에 그 돈이 남아돌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잉여분의 자금이 되게 할 수는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려는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남아돌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있는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남아도는 돈이 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자

이겁니다.

이러한 돈의 성질, 돈은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남아돌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러나 남아돌게 벌 수는 없다는, 이 돈의 성질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환란을 당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헌금 이야기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고린도교인들이여, 너희는 1년 전에 이 헌금을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아직도 그 헌금하는 행위가 마쳐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행위에 자극을 받아서 좀 더 분발하므로 약속된 헌금을 제대로 잘 마치자!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것과 많이 심는다는 것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돈으로 축복을 많이 주시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축복을 많이 주시고, 헌금을 적게 하면 축복도 적게 주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거둔다,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게 6절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많이 거둔다는 것은 오복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 의의 열매는 본문 중에서 살펴보면,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될 경우에, 구제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보를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 특히 복음이 출발된 그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이 너희가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많다, 적다'라는 얘기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만 원 헌금하는 것과 200만원 월급쟁이 샐러리맨이 10만 원 헌금하는 게 어느 게 더 많고 적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고 많다는 것은 7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많이 헌금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하는 겁니다.
많다 적다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는 기껍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들을 낼 수가 있습니까?
돈을 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돈을 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신앙적으로 무슨 대단한 덕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똥기마이 쓰는 사람 많아요, 술 조금 들어가면 팁이 십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런 식의 돈을 내는 것, 돈을 지출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헌금을 낼 때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색함과 억지로 함이 없어야 되는데, 인색함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내는 헌금의 액수만큼이 순간적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돈을 쓸 때 어떠한 가치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환산이 되는 거예요.
100만원 헌금한다고 하면 100만원을 이 세상에서 쓰게 될 때 그 100만원어치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라고 하는 계산이 아주 automatic 하게 speedy 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돈의 효용가치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인색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로 만족함과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근거로 돈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색해지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쌓아올린 축대 중에서 벽돌 하나를 빼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벽돌을 빼내지는 못하고 축대 위에서 긁어서 부스러기로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빠지면 내 인생의 미래, 내 가정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인색함과 억지로, 목사님이 헌금명단을 보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헌금명단이 공개되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 정도 내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겠지'라는 계산에서 내는 것, 억지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즐거워질까요?
인색함의 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인색함과 억지로 함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색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돈의 효용가치에 맛을 느끼고 있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려면, 내 기쁨과 만족과 안정된 삶의 근거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깊이 친밀하게 들어와 계시느냐에 따라서 돈을 밀어내는 겁니다.
돈이 마음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하는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즐겁게 헌금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친밀하게 들어와 계시느냐, 내 안정과 만족의 근거가 되느냐에 따라서 돈이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밀려나간 돈을 즐겁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깊게 들어와 있는 돈은 인색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의해서 헌금을 강탈당하고 있는 셈이에요.
강도당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인색하지 않을 수 없죠.
결국은 칼 안 든 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헌금을 요구하는 교회가.

자, 즐겁게 낸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열매 중 하나는, 연보하는 그때의 마음가짐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많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가 측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 하나의 열매에요.
하나님 사랑을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할 때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모든 은혜, 넘친다, 넉넉하다, 항상 넉넉하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넉넉할 수가 있을까요?

이 넉넉하다는 단어는 '아우타르케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그 의미가 '자족', 이 세상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만족이 충만한 상태가 '아우타르케이안'입니다, 이게 견유학파의 이상이에요.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만족이 충만한 상태, 이 말을 사도바울이 가지고 와서 넉넉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식으로 넉넉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배가 부르고도 아직 음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넉넉한 거예요.
이 의미를 합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내 배가 부른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넉넉한 상태거든요.

자, 넉넉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넉넉함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돈이 아무리 없어도 넉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아학파의 '아우타르케이안'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충만한 상태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넉넉함은 조건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넉넉함을 느끼는 거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것으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이 지구와 해와 달과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늘과 땅이 더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놓으셨나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턱도 없이 작은 이 지구 전체를 다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내가 소유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이 마음은 넉넉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마음이 그렇게 설계돼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지구를 가져도 넉넉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빨아들이는 주입구를 이 세상을 향하도록 열어놓고 세상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넉넉함이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최고급 외제차가 세 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승용차가 한 대가 있대요, 집이 돈으로 아예 칠갑을 했답니다, 가구며 뭐며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사로운 게 없는 집이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건축헌금을 내라는 광고를 하시면서 은근히 자기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불러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가 봐요, 건축헌금을 하라고 광고를 하셨나본데 아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 얘기를 자기에게 압력을 넣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돈이 많다보니 자격지심이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도대체 낼래야 낼 돈이 없는데 자꾸 헌금을 하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불평어린 말을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한테 말씀을 전하는 집사님이 원망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외제차 세 대에 자동차가 모두 네 대에다 집은 임금 사는 왕궁처럼 해놓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분 마음에는 진짜 돈이 없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돼요, 그렇게 살면서 넉넉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지구를 다 가져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바울이 말하는 넉넉함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넉넉함일까요?
빈 마음의 주입구를 하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고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서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모셔 들일 때에만 마음에는 만족이 생기고, 이렇게 만족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늘을 향해 마음의 주입구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넉넉함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만족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다 남아도는 잉여의 자금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그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잉여자금이 돼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잉여자금일까? 이건 한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즉 그분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헌금 궤까지 갖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의 마음은 주입구를 하늘을 향해 계십니다.
아버지를 언제나 흡입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아버지로 다 채우고, 세상으로 나오실 때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스토아학파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넉넉함인 것처럼 아무에게도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당신의 육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조차도 잉여자금이 돼버린 겁니다.
육체조차도 당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 쓸 자금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육체를 사용해서 뭔가 기쁜 일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 잉여자금인 육체를 십자가에 거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교회가 예루살렘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잉여자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으로부터, 절대 빈곤으로부터 예루살렘 동료교인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잉여자금으로.
어떻게 잉여자금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주입구가 하늘을 향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분명합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이게 캘빈의 소명론의 핵심이에요, '모든 세속적인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그 소명에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에요.
지금 계속해서 사도바울이 헌금행위 자체를 은혜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참 연보'의 헬라어 단어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연보의 행위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직업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만드는 회사건 어떤 직장이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소명을 이루러 가는 것이고, 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돈은 전부다 남아도는 돈이 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남아도는 돈이 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잉여자금인 돈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출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얘깁니다.
'너희가 헌금을 하게 되는 걸 보면 예루살렘교인들이 너희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잉여의 돈으로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이 세상 있으니까 자꾸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도 갖고 싶고, 좋은 백도 갖고 싶고, 겨울철이 되면 유명메이커의 오리털파카도 사고 싶고, 하니까 자꾸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주입구를 아예 하늘로 향합니다.
어떻게 하늘로 향합니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십자가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로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갖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소원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에 내게 주어져 있는 돈은 지갑에 3000원밖에 없어도 남아도는 돈이에요.
100억이 있어도 남아도는 돈이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쓸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을 제외해놓고는 모두 다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앞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돈이 얼마가 있든지 남아돌게 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 지긋지긋한 사탄이 허락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돈이 얼마가 되든지 다 남아돌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